

## 개념도 연구방법을 통한 대학생과 고등학생의 학습동기조절전략 비교\*

이정윤(李貞倫)\*\*

정혜연(鄭惠娟)\*\*\*

김지현(金智賢)\*\*\*\*

### 논문 요약

본 연구는 우리나라 대학생과 고등학생이 학습동기를 조절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전략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학생들의 학습동기조절전략에 대한 개념적 구조를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질적 양적 연구방법을 결합한 형태의 연구법으로서 연구 참여자들이 경험하는 현상의 구조를 밝히는데 유용한 개념도 연구방법을 사용하였으며, 대학생과 고등학생 각 32명이 브레인스토밍 초점집단에 참여하여, 각각 382개와 271개의 진술문을 도출하였고, 이로부터 대학생 67개, 고등학생 60개의 진술문이 최종적으로 축약되었다. 초점집단에 참여했던 학생들 중 대학생 30명과 고등학생 28명을 대상으로 유사성 분류작업을 수행하여 다차원 척도분석과 위계적 군집분석을 실시한 결과, 대학생과 고등학생 모두 2차원(대학생은 개인 대 관계, 효능감/의미 대 보상 차원, 고등학생은 개인 대 관계, 내외적 환경조성 대 보상 차원), 6개 군집(대학생은 행동 및 환경통제/숙달, 긍정적 자기암시를 통한 의미부여, 시간적 경험을 통한 효능감 증진, 공부에 대한 의무감 및 당위성, 부모기대 및 또래비교/수행회피, 긍정적 결과 예상, 고등학생은 부모기대 및 또래비교, 수행회피, 긍정적 결과예상, 개인적 가치/필요지향, 행동 및 환경통제, 타인의존지향)이 도출되었다.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 학생들의 학습동기조절전략에 대한 함의와 본 연구의 제한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요어 : 학습동기, 학습동기조절전략, 개념도 연구

\* 이 논문은 2014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 2014S1A5A2A01012660)

연구 참여자 인터뷰와 진술문 분석에 도움을 준 이다미 석사과정 학생에게 감사를 표한다.

\*\* 제 1 저자 및 교신저자, 성신여자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 제 2 저자,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심리학과 박사과정 수료

\*\*\*\* 제 3 저자,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심리학과 박사과정 수료

## I. 서론

‘학습자가 스스로 공부를 시작하고 조절하며 유지해나가는 목적지향적 활동’인 자기조절학습은 1980년대 중반 이후부터 많은 관심을 받게 되었고(양명희, 오종철, 2006), 이는 학업성취와 학습에서의 질적 차이를 가져오는 중요한 특성으로 간주되고 있다. 자기조절학습의 연구초기에는 주로 인지 조절과 초인지 조절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기 시작하였으나, 1990년대 이후로는 자기조절학습에서 동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연구가 주목받기 시작하였고, 우리나라에서도 대략 2000년을 전후해서 학습에서의 동기와 동기조절에 대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박승호, 2013, 이정운, 2013).

그동안 학습에서의 동기에 대한 연구는 주로 자기조절학습의 구성요소로서 ‘동기’를 강조하였다. 즉 자기조절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인지적 요소 뿐 아니라 동기적 요소가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구체적으로 자기효능감, 흥미, 과제가치, 귀인 그리고 성취목표 등을 동기적 요소로 제시하였다(Dweck, 1986; Schunk, 1991; Pintrinch, 2000). 하지만 이후 Wolters(2003), 박병기, 전기수, 김선미와 이종욱(2005), 그리고 조은문과 이종연(2010)은 ‘동기’와 ‘동기조절’을 구분하면서, 동기조절은 동기를 인식하고 조정하는 포괄적인 과정으로서, 학습자가 자신의 정서나 동기수준을 인식하고 나아가 이를 조절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는 매우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노력과정이라고 보았다.

이렇듯 자기조절학습에서 동기조절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동기조절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들도 개발되어 왔다. 외국에서 개발된 것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는 Wolters(1998)의 동기조절전략척도(Motivational Regulation Strategy Inventory: MRSI)가 있는데, 이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개발된 다섯 가지 동기조절전략으로 구성된 척도이다. 여기에는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스스로 보상과 처벌을 사용하는 ‘자기결과조치’, 공부하면서 흥미와 즐거움을 증가시키는 전략을 사용하는 ‘흥미강화’, 남보다 좋은 성적을 받거나 자기가 우월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공부하는 ‘수행자기지시’,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키고 배움 자체에 목표를 두는 ‘숙달자기지시’, 공부할 때 환경에서 방해요인을 제거하는 ‘환경통제’가 포함되어 있다. 이후 Schwinger, von der Laden & Spinath(2007)는 Wolters가 제시한 다섯 가지 전략을 확장하여 모두 여덟 가지 요인으로 구성된 동기조절척도를 개발하였는데, 여기에는 MRSI 척도의 흥미강화 요인을 세분화하여 지루한 과제를 재미있게 만드는 ‘상황흥미증진’과 공부를 개인적인 흥미나 선호와 연관 짓는 ‘개인의미증진’으로 구분하고, 수행자기지시를 친구들보다 더 잘 하거나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 공부하는 ‘수행접근 자기지시’와 친구들에 비해 뒤처지거나 안 좋은 성적을 받지 않기 위해 공부하는 ‘수행회피 자기지시’로 나누어 제시하였으며, 목표를 비교적 짧게 설정함으로써 효능감을 유지시키는 ‘근접목표설정’ 요인을 추가하여, 모두 여덟 가지 요인으로 구성된 동기조절척도를 제

안하였다. Wolters(2010)는 1998년에 MRSI를 제시한 데 이어 동기조절에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연구를 수행한 바, MRSI의 다섯 요인에다가 공부가 자신에게 유용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조절' 요인을 추가하여, 모두 여섯 가지 동기조절전략으로 구성된 수정판 MRSI를 발표하였다.

한편 국내에서도 동기조절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가 개발되었는데, 박병기 등(2005)의 복합적 자기조절학습 척도와 양명희와 정윤선(2013)의 자기조절학습 척도가 그것이다.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개발된 박병기 등(2005)의 복합적 자기조절학습 척도에는, 공부에 자신감이 없어질 때 과거의 성공경험을 떠올리거나 스스로에게 격려하는 말을 함으로써 자신감을 북돋우는 '효능고양', 공부가 재미없어질 때 공부를 보다 즐겁게 하기 위한 방법을 생각하고 적용해보는 '흥미유지', 공부하기 싫어질 때 앞으로 생길 부정적 결과를 떠올리거나 나에게 실망할 부모나 선생님의 모습을 떠올려보는 '경계유지', 공부하기 싫어질 때 공부하는 것이 왜 중요하고 필요한지에 대해 생각해보는 '가치인식', 그리고 공부하다가 기분이 안 좋을 때 기분을 전환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정서관리'와 같은 다섯 가지 요인이 포함되어 있다. 양명희와 정윤선(2013)의 자기조절학습척도에도 동기조절과 정서조절 하위요인이 포함되어 있는데, 동기조절에는 잘 할 수 있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하고 자기지시하는 '자기설득', 공부하지 않았을 때 생길 부정적 결과들을 떠올리며 학습동기를 유지하려는 '긴장유지', 공부를 보다 즐겁게 하려는 '흥미강화', 공부가 끝난 이후에 스스로에게 보상을 제공하는 '자기보상'의 네 요인이 포함되며, 정서조절에는 공부할 때 생기는 부정적 정서를 적절히 통제하려 노력하는 '정서통제', 부정적 사고를 긍정적 사고로 재해석하려는 '사고전환', 공부하다가 생기는 충동을 다스리려 노력하는 '충동억제'와 같은 세 요인이 포함된다.

이와 같이 학습에서의 동기조절전략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들이 국내외에서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이들 척도에 포함된 하위요인들이 일부 제한된 전략에만 초점을 맞추거나, 아니면 구체적이고도 다양한 동기조절전략들을 측정하는 문항들을 포함하지 않고 있으며, 따라서 학습자가 사용하는 동기조절전략의 실제 모습을 확인하는데 충분치 못한 측면이 있다(전명남, 박혜숙, 2012; 양명희, 정윤선, 2013; Zeidner, Boekaerts, & Pintrich, 2000). 실제로 Schwinger 등(2007)도 Wolters가 제시한 동기조절전략이 다섯 가지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보다 다양한 전략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MRSI의 25문항과 함께 대학생들에게 개방형 질문을 사용하여 문항을 추가로 수집한 후 모두 여덟 가지 요인으로 확대된 동기조절척도를 제시한 바 있고, Wolters(2010)도 그의 지속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보다 다양한 전략들을 추가하고자 하였으나 수정판 MRSI에 가치조절과 같은 한 가지 요인을 추가하는데 그치고 있다.

한편 학습동기와 이를 조절하기 위해 학생들이 사용하는 전략들이 문화적 맥락에 따라 학생들 간에 서로 차이가 날 수 있다(Niles, 1995; 봉미미 등, 2008)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문화적

맥락에 따른 학생들의 학습동기나 동기조절전략에서의 차이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개인주의 문화권의 서양 학생들에 비해 집단주의 문화권에 속하는 아시아계 학생들은 학습장면에서의 중요한 동기로서 사회적 인정을 추구(Niles, 1995)하거나, 사회지향적인 성취동기(Yu & Yang, 1994; Nie & Liem, 2013)를 지니며, 가족이나 집단에 대한 의무감(Triandis, 1990) 같은 것이 많이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봉미미 등(2008)과 김의철, 박영신, 구재선(2004)도 서구의 청소년들이 주로 내적 동기에 의해 공부를 하는 것에 비해,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원하는 대학이나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혹은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와 같은 외적 동기에 의해서 공부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하였다. 또한 박영신, 김의철, 정갑순(2004)과 Chao & Tseng(2002), Jiang, Bong, & Kim(2015)에 의하면, 우리나라 부모들은 자식에 대한 기대가 매우 크고 교육열이 높기 때문에 자식의 교육을 위해 헌신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며, 자녀들은 이러한 부모의 기대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강한 열망을 지니고 부모의 희생에 보답하려는 의무감과 부담감을 갖게 된다고 한다. 따라서 이러한 독특한 부모자녀관계로 인해 우리나라 학생들은 내적 동기보다는 외적 동기에 의해 학습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뭔가를 스스로 배우고 도전하기 위해 학습하는, 즉 학업에서 숙달목표를 지향하기 보다는, 남들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입증하거나 혹은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공부하는 수행목표 지향성을 많이 나타내게 된다고 하였다. Zusho, Pintrich, & Cortina(2005)도 집단주의 문화권의 아시안 학생들이 서양 학생들보다 수행회피 목표를 더 많이 지향한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은 문화권에 따른 차이는, 개인주의 문화권인 서양에서는 개인의 목표와 성취를 중시하며 집단의 결속이나 사회적 인정에 대한 관심이 적은 반면, 집단주의 문화권인 동양에서는 자아를 집단과 동일시하여 개인적 목표보다 집단의 목표를 우선시하고, 자신이 속한 집단, 즉 가족을 위해 노력하도록 동기화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하였다(박진아, 서은국, 2007; Triandis, Bontempo, Villareal, Asai, & Lucca, 1988).

이러한 맥락에서 봉미미 등(2008)은 국제비교연구에서 주로 사용하는 학습동기 지표들이 대부분 서양에서 개발된 척도들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학생들의 학습동기를 온전히 측정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박승호(2013)도 학습을 자기조절 한다는 것은 결국 자신의 동기와 감정을 통제하는 것인데, 이 과정에서 문화 차이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주로 서양문화권에서 개발된 자기조절학습에 대한 연구들을 우리나라와 같은 독특한 입시위주 문화권에서 자란 학생들에게 일반화하는 것이 가능할지에 의문을 제기하였다. 실제로 이정운(2013)은 Schwinger 등(2007)이 개발한 동기조절전략척도를 토대로 한국판 학습동기조절전략 척도를 제시한 바 있는데,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은 상황흥미증진과 개인의미증진이 서로 다른 요인으로 구분되지 않고 같은 요인으로 묶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적이 높은 학생들이나 낮은 학생들 모두 흥미/의미증진 전략을 가장 적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정운(2013)은 우리나라 학생들은 공부할 때 자신의 경험 또는 관심과 연관 지어 봄으로써 동

기를 증진시키거나 또는 공부를 재미있게 함으로써 동기를 증진시키는 전략을 서로 구분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다지 중요하게 사용하는 전략이 아니라고 하였고, 그 외의 나머지 전략들에서는 우리나라 학생들과 서양 학생들 간에 큰 차이가 없다고 밝혔지만, 추후 연구에서 동서양 학생들이 각각 어떤 전략들을 사용하고, 이들 간에 유사점과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또한 국내에서 개발된 박병기 등(2005)과 양명희 등(2013)의 척도를 살펴보면, 서양에서 개발된 척도의 하위요인들과 달리, 스스로 효능감을 고양시키는 전략이나, 스스로의 기분을 조절하는 정서관리 전략, 또는 부모나 교사의 모습을 떠올리며 긴장을 유지하는 전략 같은 것이 새롭게 추가된 것을 살펴볼 수 있다. 따라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학습동기를 조절하는 전략이 문화적 맥락에 따라 차이가 나타날 가능성(Garcia, Yu, & Coppola, 1993)이 있고, 집단주의 문화권에 속하는 아시아 학생들이 공부할 때 보다 다양한 전략을 사용한다는 점(Niels, 1995)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 학생들의 학습동기조절전략을 정확히 측정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학습동기조절전략이 무엇인지 학생들을 대상으로 직접 조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 척도들이 일부 제한된 동기조절전략들을 측정하고 있기 때문에 학습자가 사용하는 동기조절전략의 실제 모습을 충분히 확인하기에는 부족하다는 문제점과, 서양에서 개발된 척도의 문항 내용을 가지고 우리나라 학생들의 학습동기조절전략을 측정하는데 있어서 발생가능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우리나라 고등학생과 대학생이 학습동기를 조절하기 위해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전략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학생들의 학습동기조절전략에 대한 개념적 구조를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개념도 연구방법(concept mapping)을 사용하고자 하는데, 이는 연구 참여자가 주체가 되어 스스로 인식하거나 경험하고 있는 것들을 보고하는 방식으로 자료를 수집한다. 따라서 연구자 관점에서가 아니라, 연구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실제로 경험하고 인식하고 있는 것들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현상과 실제에 보다 가까운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개념도 연구방법은 질적인 방법과 양적인 연구방법을 결합한 형태의 분석법으로서, 인터뷰를 통해 얻은 질적인 자료를 군집분석이나 다차원척도법과 같은 양적 방법으로 다시 분석함으로써, 연구 참여자들의 경험과 인식을 시각적인 결과, 즉 2차원 평면상에 개념도라는 그림으로 나타내준다. 때문에 개념도 연구방법은 연구대상자들에게 실제 발생하고 있는 경험과 인식을 파악하는데 있어서 연구자가 지니는 제한된 관점 혹은 편견을 최대한 지양할 수 있으며, 연구 참여자들이 경험하는 현상의 영역과 구조를 밝히는데 특히 유용한 연구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민경화, 최윤정, 2007; Tromchim, 1989; Goodyear, Lichtenberg, Tracey, Claiborn, & Wampold, 2005). 이에 국내에서도 최근 들어 상담분야에서 개념도 연구법을 활용한 연구들이 점점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며, 개념도 연구결과는 이후 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기초자료(Tromchim, 1989)로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척도를 개발하기 위한 문항수집 과정(Rosas & Camphausen, 2007)에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개념도 연구방법을 적용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첫째, 우리나라 대학생과 고등학생이 사용하는 학습동기조절전략의 개념도와 중요도는 어떠한가? 둘째, 대학생과 고등학생이 사용하는 학습동기조절전략의 개념구조(차원, 군집 및 중요도, 진술문)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 II. 연구방법

### 1. 연구 참여자

개념도 연구 참여자 인원수는 최소 8명에서 40명 이하가 적합하다고 한 Kane과 Trochim(2007)의 제안에 따라, 학습동기조절전략을 경험적으로 추출하기 위한 브레인스토밍 초점집단은 대학생 32명, 고등학생 32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학생들의 학업성취수준에 따라 이들이 사용하는 학습동기조절전략에 차이가 있을 가능성(양명희, 정운선, 2013; 이정운, 2013)을 고려하여, 가능한 한 학업성취 수준을 고려하여 학생들을 모집하고자 하였다.

연구 참여자 선정 과정을 살펴보면 고등학생은 연구의 목적과 방법 및 소요시간이 구체적으로 포함된 공고문을 학교 선생님을 통해 홍보하고 자발적으로 인터뷰에 참가하고자 하는 고등학생을 모집하였다. 그 결과 서울소재 4개, 경기소재 1개 일반계와 자율형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 32명이 참여하였고, 성별 분포는 남학생이 10명(32.25%), 여학생이 22명(68.75%), 이들의 학년은 1학년이 21명(65.6%), 2학년이 11명(34.4%)이었다. 대학생 연구 참여자 모집 과정은 연구의 목적과 방법 및 소요시간이 구체적으로 포함된 연구 참여자 공고문을 대학교 홈페이지 내 게시판에 공지하거나, 강의 수강생을 대상으로 홍보하여 자발적으로 인터뷰에 참가하고자 하는 대학생을 모집하였다. 그 결과 서울소재 9개, 경기소재 2개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 32명이 참여하였다. 성별 분포는 남학생이 14명(43.75%), 여학생이 18명(56.25%)이었고, 학년별로는 1학년이 8명(18.8%), 2학년이 6명(18.8%), 3학년이 6명(18.8%), 4학년이 12명(37.5%)이었다.

진술문 분석을 위한 카드 분류 작업과 중요도 평정 작업은 초점집단과 같은 대상자로 실시하였고, 개인사정으로 인해 참여하지 못한 6명을 제외한 고등학생 28명, 대학생 30명이 참여하였다.

## 2. 연구절차

본 연구는 대학생과 고등학생이 지각하는 학습동기조절전략이 무엇인지를 개념도 방법을 사용하여 탐색적으로 확인하고, 추출된 진술문에 대한 중요도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Kane과 Trochime(2007)이 제시한 개념도 연구의 6단계 과정-개념도를 위한 준비, 아이디어 산출, 진술문들(statements)의 구조화, 개념도 분석, 개념도 해석, 개념도의 활용-을 따라 연구를 진행하였고, 다섯 번째 단계인 개념도 해석 단계는 본 연구의 결과부분에 기재하였고, 마지막 단계인 개념도의 활용 단계는 향후 수행하게 될 후속연구로서 논의에서 제안하였다.

개념도 연구의 첫 단계는 개념도를 위한 준비단계로서, 문헌고찰을 토대로 연구자들이 초점 질문(focus question)을 만들어서 대학생 3인에게 적절성을 검토하는 예비과정을 거쳐 수정 보완하여 최종적으로 초점 질문을 개발하였다. 연구에 사용된 초점 질문은 “공부를 하고 싶거나 공부 해야겠다고 마음먹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서 그 마음을 유지시키나요?”, “공부가 힘들거나 어렵거나 혹은 공부하기 싫어질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서 다시 공부하고자 하는 마음을 먹게 되나요?”이었다.

두 번째 단계는 아이디어 산출 단계로서, 2014년 9월 중순부터 10월 말까지 대학생과 고등학생 연구 참여자들을 각각 4명~7명의 초점집단으로 구성하여, 집단 브레인스토밍 방법을 통해 학습동기조절 전략에 대한 아이디어를 산출하였다. 현장에서의 브레인스토밍 방법은 상호작용을 통해 질문에 초점을 맞추어 짧은 시간 내 효율적으로 아이디어를 산출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Kane & Trochim, 2007). 집단 당 연구자 1명 또는 2명이 인터뷰를 진행하였고, 시간은 인구학적 질문지 작성을 포함해 대략 50분~1시간 30분이 소요되었다. 인터뷰 진행 시 연구 목적 및 소요시간을 안내하고 연구 참여 동의를 받았으며 녹음 동의를 구하고 사전에 초점 질문에 대한 작성을 하도록 하였다. 인터뷰 시 가급적 많은 아이디어를 생성하도록 격려하고 촉진적인 반응을 돕거나 불명확한 부분을 확인하는 질문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모든 내용은 녹음하여 완전 축어록 형태로 옮겨서 진술문을 분석, 종합하는 과정을 거쳤다. 진술문들을 분석하여 명료화하였고 공통된 내용을 종합, 편집하여 Kane과 Trochim(2007)이 권장한 100개 이하로 축약하는 작업을 실시하였고, 진술문의 적절성 검토를 위해 상담심리전문가 2인, 상담 전공 박사 과정 1인이 참여하는 전문가 자문을 2회 실시하였다. 진술문의 종합과정에서는 비슷하거나 동일한 내용은 종합, 편집하였고, 연구 참여자들이 진술한 내용의 의미를 유지하도록 참여자의 진술문에 기초하여 명료하고 간결하게 진술문 편집이 이루어졌다. 그 결과 최종적으로 고등학생은 271개의 진술문에서 60개의 진술문으로, 대학생은 382개의 진술문에서 67개로 종합하였다.

세 번째 단계는 진술문들을 구조화하고 중요도를 평정하는 단계이다. 이 작업은 아이디어 산출 단계에 참여했던 연구 대상자 중에서 개인사정으로 불참한 6명을 제외한 고등학생 28명, 대

학생 30명이 참여하여 2014년 11월 말부터 12월 말까지 이루어졌다. 수정 및 보완 과정을 거쳐 도출된 최종 진술문들을 가지고 유사성 분류를 위한 최종 진술문카드 및 중요도 평정 설문지를 제작하였다. 최종적으로 선정된 진술문을 연구 참여자들에게 제시하고 서로 유사하다고 생각하는 카드끼리 분류하도록 지시하였다. 카드분류 방법은 하나의 진술문을 하나의 범주로 분류할 수 없고, 모든 진술문을 하나의 범주로 분류할 수 없으며(Kane & Trochim, 2007), 하나의 범주에 전체 진술문의 33% 이상이 포함될 수 없고(Bedi, 2004), '기타'라는 항목의 범주로 분류할 수 없음을 조건으로 제시하였다. 분류 후에는 연구 참가자들 각자가 분류한 범주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명칭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각 진술문에 대한 중요도 평정은 고등학생, 대학생 각각 60개, 67개 진술문들이 학습동기를 조절하는데 있어 얼마나 중요한 전략이라고 생각하는지 5점 척도로 평정하도록 하였고, 이 과정은 집단별로 약 50분~ 2시간이 소요되었다.

네 번째 단계는 개념도 분석단계로, 연구 참여자들의 유사성 분류 결과를 사용하여 다차원 척도법(MDS: multidimensional scaling)과 위계적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연구 참여자들이 유사성에 따라 분류한 결과를 바탕으로 개인 유사성 행렬표를 연구 참여자의 수만큼 만들었다. 그 다음 고등학생과 대학생 각각 모든 연구 참여자들의 유사성 행렬표를 합산한 집단 유사성 행렬표(GSM: Group Similarity Matrix)를 제작하였고, 도출된 GSM을 바탕으로 다차원 척도법으로 분석하였다. 이후 산출된 각 점들의  $x$ ,  $y$ 좌표값을 이용하여 위계적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는 지도상에 위치한 점들을 내적으로 일관된 군집으로 분할하기 위함으로, 위계적 군집분석은 거리를 기반으로 하는 자료를 의미있게 해석하는데 유용한 Ward 방법을 사용하였다(Kane & Trochim, 2007). 또한 비위계적 군집분석 방법(K-means)을 통해 군집화 결과의 내적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 3. 자료 분석

참가자 개인별 유사성 분류 결과를 토대로 같은 그룹으로 묶인 진술문들은 0, 다른 그룹으로 묶인 진술문들은 1로 코딩하여 각각의 유사성 행렬을 만든 후, 전체 파일을 합산하여 하나의 집단 유사성 행렬표를 제작하였다. 유사성 카드 분류시 진술문을 빠뜨리거나 중복하여 카드를 분류한 참가자는 분석 자료에서 제외하여 대학생 24개, 고등학생 28개의 유사성 행렬을 만든 후, GSM을 제작한 분석자료를 SPSS 18.0을 사용하여 다차원 척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다차원 척도분석을 통해 도출된 좌표값을 이용해 위계적 군집분석(Ward법)을 추가로 실시하였으며, 진술문의 중요도 평정 자료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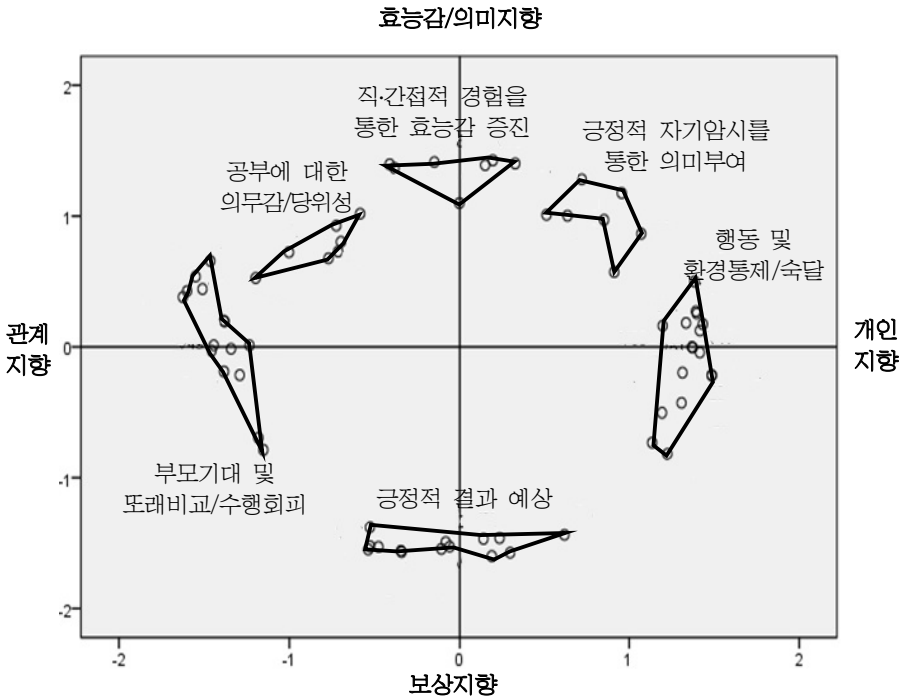
### III. 연구결과

#### 1. 대학생의 학습동기조절전략

대학생의 학습동기조절전략으로 최종적으로 선정된 총 67개 진술문에 대해 집단 유사성 행렬 형태로 만들어 다차원 척도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stress값이 1차원에서 .573, 2차원에서 .342, 3차원에서 .234, 4차원에서 .177로 나타났다. stress plot을 그려본 결과 2차원에서 크게 꺾이는 지점(elbow)이 나타났으며(박광배, 2000), 2차원 해법으로 개념도를 위한 다차원 척도분석에 적합한 평균 범위(.205-.365)를 충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Gol & Cook, 2004; Kane & Trochim, 2007). 차원 선택시 적합도 이외에도 다른 준거, 즉 구조를 단순하게 묘사하기 위해 가능한 적은 차원의 수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사용의 용이성 측면도 고려하여(Goodyear et al., 2005), 본 연구의 자료는 stress수치가 크게 감소되지 않은 채 사용의 용이성이 현격히 떨어지는 3차원 이상의 해법보다는, 2차원 해법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다차원 척도분석을 통해 도출된 좌표 값을 이용해 위계적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군집의 수는 위계적 군집분석 결과 도출된 덴드로그램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 참여자들이 분류한 범주의 수인 최소 4개에서 최대 13개( $M=8.54$ ,  $SD=2.68$ ) 내에서 선택하였으며, 연구자들이 군집 내 진술문들의 유사성과 군집 간 진술문들의 차별성을 보이는지를 검토하여 개념적 명료성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6개 군집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비위계적 군집분석 방법(K-means)을 실시함으로써 군집화 결과의 내적타당성을 살펴본 결과, 거의 모든 문항들이 해당 군집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도출된 대학생의 학습동기조절전략에 대한 개념도는 [그림 1]과 같다. 진술문들 간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연구 참여자들이 이를 유사하게 인식하며, 반대로 거리가 멀수록 다르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뜻하며, 군집의 명칭은 범주에 묶인 진술문들의 내용, 군집 간 진술문들의 차이, 카드 분류 단계에서 참여자들이 직접 부여한 범주 명을 고려하여 연구자들의 협의를 거쳐 결정하였다.



[그림 1] 대학생의 학습동기 조절전략에 대한 개념도

우선, 대학생의 학습동기조절전략에 대한 인식구조에 대한 개념도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개인지향’과 ‘관계지향’ 그리고 ‘효능감/의미지향’과 ‘보상지향’의 2차원 구조로 나타났다. 즉, 개념도 상에서 왼쪽에 위치한 군집들은 학습을 하는데 있어 또래와 비교하거나 부모의 기대를 의식하면서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날 것을 우려하고 이를 회피하는 전략을 통해 학습동기를 조절하는 것과 관련된 것이며, 오른쪽에 위치한 군집들은 타인을 의식하기 보다는 스스로 학습동기를 북돋우고 이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전략에 관련된 것이다. 또한 개념도 상에서 위쪽에 위치한 군집들은 학습하는 과정에서 학습 동기를 높이기 위해 스스로 자기 독려, 경험 떠올리기 등을 하는 것과 관련된 것이며, 아래쪽에 위치한 군집들은 학습을 함으로써 얻게 될 미래의 긍정적 혹은 부정적 결과를 예상해봄으로써 현재 자신의 학습동기를 높이는 것과 관련된 것을 나타낸다. 차원과 관련한 구체적인 진술문의 예를 살펴보면 ‘관계지향’에서는 ‘경쟁상대에게 이기고 싶은 마음을 되새긴다.’, ‘자식으로서 부모님에 대한 책임감을 떠올려본다’, ‘친구들과 비교해서 뒤처지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한다.’, ‘결과가 좋지 않았을 때 주변사람들(부모님 등)이 실망하는 모습을 상상해본다.’ 등과 같으며, ‘개인지향’에서는 ‘공부를 나의 개인적 관심과 연결 지으려고 한다.’, ‘공부를 통해 내가 관심 있는 것을 더 알아가고 싶다는 마음을 떠올려본다’, ‘과목별 중요성을 고려하여 공부의 계획을 세운다.’, ‘공부할 때 남과 비교하지 않고, 내 나름대로의 기준에 초

점을 맞춘다.’ 등과 같은 진술문들이다. ‘효능감/의미지향’의 진술문의 예를 살펴보면, ‘나에게 깨달음을 준 주변사람들(부모님, 교수님 등)의 메시지를 떠올려본다.’, ‘과거에 잘해온 경험을 토대로 앞으로도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스스로에게 되뇌인다.’, ‘나의 개인적 경험(여행, 봉사활동 등)에서 깨달은 공부의 필요성을 되새긴다.’ 등과 같고, ‘보상지향’에서는 ‘나의 꿈과 비전을 이뤘을 때의 모습을 상상해본다.’, ‘공부가 미래의 부(경제력)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생각을 해본다.’, ‘공부를 마칠 때 얻을 수 있는 실질적인 보상(장학금, 자격증, 취업 등)을 떠올려본다.’, ‘공부를 마친 후 놀기로 나 자신과 약속한다.’ 등의 진술문이었다.

<표 1> 대학생이 인식한 학습동기조절전략에 대한 군집과 진술문, 진술문에 대한 중요도

군집명 / 진술문	중요도	
	M	SD
<b>1. 행동 및 환경통제/숙달</b>	<b>3.55</b>	
공부하기 싫어지면, 휴식(잠자기 등)이나 여가활동(산책, 놀기 등)을 한다.	3.96	1.10
공부할 때 남과 비교하지 않고, 내 나름대로의 기준에 초점을 맞춘다.	3.93	1.21
과목별 중요성을 고려하여 공부의 계획을 세운다.	3.89	1.23
공부를 나의 개인적인 관심과 연결지으려고 한다.	3.86	0.93
내가 달성하고자 하는 단기적인 목표(학점, 성취수준 등)를 세워본다.	3.86	1.30
공부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공부시간과 해야할 공부의 양을 구체적으로 계획한다.	3.82	1.12
공부하기 싫어지면, 신체활동(자전거 타기, 운동 등)을 통해 기분을 전환시킨다.	3.79	1.07
지금 하고 있는 공부에서 새롭게 배울 수 있는 면을 강조한다.	3.61	1.10
한 단계를 마치면 다음단계도 도전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다.	3.53	1.17
공부하기 전에 주변에 방해가 될 만한 것들(잠음, 핸드폰 등)을 없앤다.	3.50	1.32
공부를 통해 내가 관심있는 것을 더 알아가고 싶다는 마음을 떠올려본다.	3.46	0.96
공부가 하기 싫어지면, 다시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까지 기다린다.	3.43	1.07
흥미를 잃지 않도록 공부의 난이도를 조절한다.	3.32	1.44
공부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 사라지기 전에 바로 행동으로 옮긴다.	3.30	1.40
공부를 즐기면서 재미있게 하려고 한다.	3.29	1.18
공부할 때 집중이 잘 되는 물리적 환경(책상정리, 장소이동 등)을 만든다.	3.29	1.44
공부할 때 집중이 잘 되는 음악을 듣는다.	2.46	1.48
<b>2. 긍정적 자기 암시를 통한 의미 부여</b>	<b>3.38</b>	
내가 왜 공부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생각해본다.	3.96	1.00
‘나는 잘할 수 있어’ 라고 스스로에게 말한다.	3.82	1.12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는 여건을 만든다.	3.46	1.23
공부에 자극을 주는 글귀/문구를 붙여놓아서 마음을 다잡는다.	3.32	1.28
학습동기부여에 도움이 될 만한 다양한 매체(책, 영화 등)를 찾아본다.	3.25	1.04
지금 하고 있는 공부가 내가 선택한 것임을 떠올려본다.	3.14	1.30
수업을 더 잘 듣기 위해 선생님의 말씀이 재밌다거나 선생님을 좋아해보려고 노력한다.	2.68	1.25

<표 1> 대학생이 인식한 학습동기조절전략에 대한 군집과 진술문, 진술문에 대한 중요도(계속)

군집명 / 진술문	중요도	
	M	SD
<b>3. 직간접적 경험을 통한 효능감 증진</b>	<b>3.34</b>	
과거에 잘해온 경험을 토대로 앞으로도 잘 할 수 있을거라고 스스로에게 되뇌인다.	3.82	1.06
나에게 깨달음을 준 주변사람들(부모님, 교수님 등)의 메시지를 떠올려본다.	3.50	1.11
나의 개인적 경험(여행, 봉사활동 등)에서 깨달은 공부의 필요성을 되새긴다.	3.50	1.14
공부를 미리 해놓았을 때 좋았던 경험을 떠올려본다.	3.39	1.17
개인적인 실습이나 체험을 통해 느꼈던 점을 떠올려본다.	3.32	1.06
성공한 사람들의 경험담이나 성공과정을 떠올려본다.	3.11	1.07
아르바이트나 힘든 일을 했던 경험을 떠올리면서 공부가 그래도 쉽다는 생각을 해본다.	2.71	1.38
<b>4. 공부에 대한 의무감 및 당위성</b>	<b>2.87</b>	
공부할 수 있는 시간(시험입박 등)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을 해본다.	3.86	1.27
시간을 헛되게 보내지 말아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되뇌인다.	3.46	1.00
내가 받았던 좋은 성적을 계속 유지해야겠다는 생각을 해본다.	3.43	1.07
공부가 하기 싫어질 때 이제까지 투자한 시간이나 노력을 떠올려본다.	2.82	1.16
공부를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의무감을 떠올려본다.	2.54	1.37
공부가 학생의 본분이라고 스스로에게 강조한다.	2.29	1.08
‘공부가 내 길이고, 공부밖에 할 것이 없다’ 고 스스로에게 말한다.	1.71	0.81
<b>5. 부모기대 및 또래비교/수행회피</b>	<b>2.93</b>	
부모님이 기뻐하시고 자랑스러워 하시는 모습을 떠올려본다.	3.64	1.16
주변에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해야겠다는 마음을 먹는다.	3.50	1.32
다른 사람들(친구, 교수님, 부모님 등)의 인정이나 좋은 평가를 받는 상상을 해본다.	3.46	1.14
지금 공부를 하지 않았을 때, 나중에 후회할 내 모습을 떠올려본다.	3.29	1.41
친구들과 비교해서 뒤처지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한다.	3.14	1.30
해야 할 공부나 과제를 안 했을 때 성적이 떨어지는 등의 부정적 결과가 생길 것을 떠올려본다.	3.00	1.44
자식으로서 부모님에 대한 책임감을 떠올려본다.	3.00	1.41
그동안 나에게 투자한 부모님의 경제적 지원을 떠올려본다.	3.00	1.33
경쟁상대에게 이기고 싶은 마음을 되새긴다.	2.96	1.57
친구들에게 놀림 받거나 무시당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2.96	1.43
주변사람들(부모님, 교수님 등)의 기대를 떠올려 본다.	2.96	1.26
공부를 하지 않고 놀았을 때 생기는 죄책감을 떠올려본다.	2.71	1.30
결과가 좋지 않았을 때 주변사람들(부모님 등)이 실망하는 모습을 상상해본다.	2.43	1.37
형제/자매와의 비교를 통해 공부하고 싶은 마음을 먹는다.	2.04	1.26
내가 공부를 제대로 안할 때 주변사람들(부모님 등)이 하는 부정적인 이야기나 질책을 떠올려본다.	1.82	1.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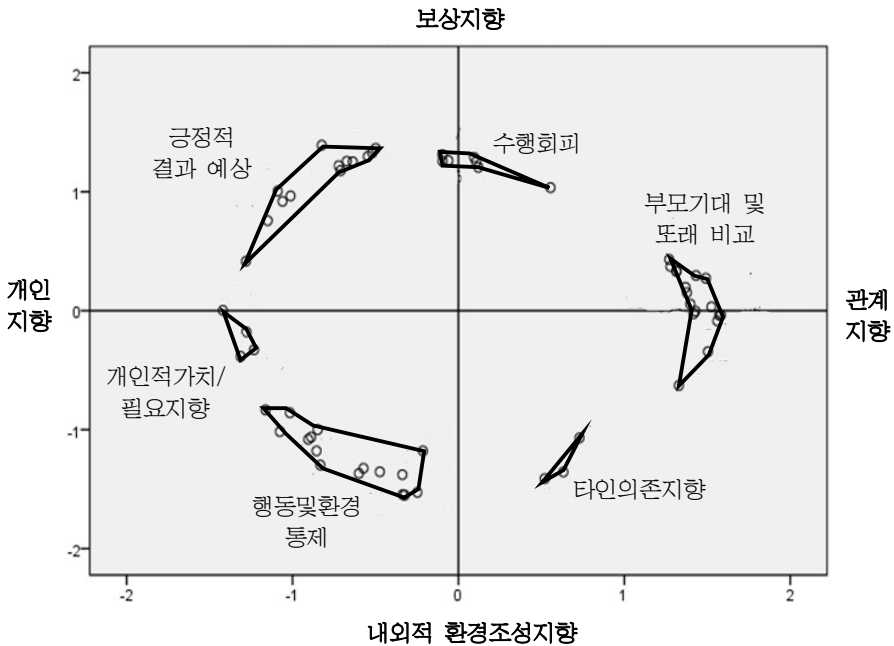
**<표 1> 대학생이 인식한 학습동기조절전략에 대한 군집과 진술문, 진술문에 대한 중요도(계속)**

군집명 / 진술문	중요도	
	M	SD
<b>6. 긍정적 결과 예상</b>	<b>3.61</b>	
공부를 함으로써 얻는 성취감과 자신감을 떠올려본다.	4.14	1.01
공부를 끝내 놓은 후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을 떠올린다.	4.00	1.15
공부를 마치고 나면 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한다.	3.93	1.25
나의 꿈과 비전을 이뤘을 때의 모습을 상상해본다.	3.89	1.23
현재 하는 공부를 통해 미래의 나의 역량이 강화될 것을 생각해본다.	3.86	1.01
공부를 마친 후 놀기로 나 자신과 약속한다.	3.82	1.19
지금 하는 공부가 미래를 위한 기반(취업, 교환학생, 유학, 대학원 진학 등)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3.71	1.24
공부를 마칠 때 얻을 수 있는 실질적인 보상(장학금, 자격증, 취업 등)을 떠올려본다.	3.57	1.40
취업목표를 확인하고 현재 나의 스펙을 비교하여 부족한 부분을 채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3.46	1.37
공부가 미래의 부(경제력)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생각을 해본다.	3.32	1.31
지금 하고 있는 공부가 나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3.29	1.08
스스로 설정해둔 중장기 계획(3년후, 5년 후)을 떠올려본다.	3.18	1.31
나의 머릿속에 지식이 쌓이는 즐거움을 떠올려본다.	3.18	1.06
지금 내가 공부하는 것이 앞으로의 직장생활이나 일상생활에서 실제로 쓸모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본다.	3.14	1.24

6개의 군집화된 범주와 범주에 속한 진술문들, 그리고 각 진술문에 대해 연구 참여자들이 인식한 중요도는 <표 1>과 같다. 6개 군집은 '행동 및 환경통제/숙달', '긍정적 자기암시를 통한 의미부여', '직간접적 경험을 통한 효능감 증진', '공부에 대한 의무감 및 당위성', '부모기대 및 또래비교/수행회피', 그리고 '긍정적 결과 예상'으로 도출되었다. 대학생이 스스로 보고한 군집별 학습동기조절전략의 중요도는 긍정적 결과 예상(M=3.61), 행동 및 환경통제/숙달(M=3.55), 긍정적 자기암시를 통한 의미부여(M=3.38), 직간접적 경험을 통한 효능감 증진(M=3.34), 부모기대 및 또래비교/수행회피(M=2.93), 공부에 의한 의무감 및 당위성(M=2.87)의 순으로 나타났다. 진술문별로는 '공부를 함으로써 얻는 성취감과 자신감을 떠올려본다(M=4.14)', '공부를 끝내 놓은 후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을 떠올린다(M=4.00)', '공부하기 싫어지면, 휴식(잠자기 등)이나 여가활동(산책, 놀기 등)을 한다(M=3.96)', '내가 왜 공부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생각해본다(M=3.96)' 등이 학습동기조절전략에 있어 중요하다고 평정하였고, '공부할 때 집중이 잘 되는 음악을 듣는다(M=2.46)', '공부가 학생의 본분이라고 스스로에게 강조한다(M=2.29)', '형제/자매와의 비교를 통해 공부하고 싶은 마음을 먹는다(M=2.04)', '내가 공부를 제대로 안할 때 주변사람들(부모님 등)이 하는 부정적인 이야기나 질책을 떠올려본다(M=1.82)', '공부가 내 길이고, 공부밖에 할 것이 없다고 스스로에게 말한다(M=1.71)' 등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평정하였다.

## 2. 고등학생의 학습동기조절전략

고등학생의 학습동기조절 전략의 개념도 역시 대학생과 마찬가지로 총 60개 진술문에 대해 집단 유사성분류 행렬표를 만들어 다차원 척도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stress 값이 1차원에서 .582, 2차원에서 .353, 3차원에서 .246, 4차원에서 .182로 나타나 2차원 해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 다차원 척도법에서 도출된 좌표값을 이용해 위계적 군집분석을 실시하였고, 비위계적 군집분석(K-means)을 실시한 결과 거의 모든 문항들이 해당군집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집의 수는 연구 참여자들이 분류한 범주인 최소 5개에서 15개(M=9.82, SD=2.72) 내에서 선택하였으며, 군집 내 진술문의 유사성, 군집 간 진술문들의 차별성, 개념적 명료성을 검토하여 6개 군집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도출된 고등학생의 학습동기조절전략에 대한 개념도는 그림 2와 같다.



[그림 2] 고등학생의 학습동기조절전략에 대한 개념도

우선 고등학생의 학습동기조절전략에 대한 개념도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개인지향'과 '관계지향', '내외적 환경조성지향'과 '보상지향'의 두 가지 차원의 인식구조로 나타났다. 개념도 좌우로 구분해서 볼 때, 왼쪽에 있는 군집들은 학습을 하는데 있어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거나 동기를 조절하는 전략과 관련되고, 오른쪽에 위치한 군집들은 또래와 비교하거나 부모 또는 교사의

기대에 맞추려는 생각을 통해 학습동기를 조절하는 전략과 관련된다. 구체적인 진술문의 예를 살펴보면 ‘개인지향’ 차원은 ‘공부를 나의 개인적 관심과 연결 지으려고 한다.’, ‘지금 하고 있는 공부가 나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공부할 때 스스로 설정해둔 장기적인 목표를 떠올려본다.’ 등과 같으며, ‘관계지향’ 차원은 ‘다른 사람들(친구, 선생님, 부모님 등)의 인정이나 좋은 평가를 받는 상상을 해본다.’, ‘공부를 제대로 안할 때 주변사람들(부모님, 선생님 등)이 하는 부정적인 이야기나 질책을 떠올려본다.’,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줘야겠다고 생각한다.’ 등이다. 개념도의 두 번째 차원은 상하로 구분하여 볼 수 있는데, 위쪽에 위치한 군집들은 학습 후에 미래에 나타날 긍정적 부정적 결과를 예상해봄으로써 학습동기를 높이는 것과 관련된 것이며, 아래쪽에 위치한 군집들은 스스로 공부 자세를 다잡고 공부여건을 조성함으로써 학습동기를 높이는 전략과 관련된 것이다. 구체적인 진술문의 예를 살펴보면 ‘보상지향’에서는 ‘내가 원하는 대학에 떨어지는 것을 상상해본다.’, ‘지금 공부를 하지 않았을 때, 나중에 후회할 내 모습을 떠올려본다.’, ‘공부를 열심히 하면 점점 더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공부를 잘해야 내가 원하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본다.’ 등의 진술문이 있으며, ‘내외적 환경조성지향’에서는 ‘공부하기 전에 주변에 방해가 될 만한 것들(잡음, 핸드폰 등)을 없앤다.’, ‘공부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공부 시간과 해야 할 공부의 양을 구체적으로 계획한다.’, ‘과거에 공부를 열심히 했던 경험을 토대로 앞으로도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스스로 되뇌인다.’,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는 여건을 만든다.’ 등의 진술문이 있다.

6개의 군집화된 범주와 범주에 속한 진술문들, 그리고 각 진술문에 대해 연구 참여자들이 인식한 중요도는 <표 2>와 같다. 6개 군집은 ‘부모기대 및 또래비교’, ‘수행회피’, ‘긍정적 결과예상’, ‘개인적 가치/필요지향’, ‘행동 및 환경통제’, 그리고 ‘타인의존지향’으로 도출되었다. 고등학생이 스스로 보고한 군집별 학습동기조절전략의 중요도는 긍정적 결과 예상(M=3.86), 내적동기 지향(M=3.66), 수행회피(M=3.38), 부모 기대 및 또래 비교(M=3.34), 행동 및 환경통제(M=3.27), 타인의존지향(M=2.97) 순으로 나타났다. 진술문별로는 ‘지금 공부를 하지 않았을 때, 나중에 후회할 내 모습을 떠올려본다(M=4.31).’, ‘가고 싶은 대학이나 원하는 직업과 관련된 정보를 찾아본다(M=4.27).’, ‘주변에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공부해야겠다는 마음을 먹는다(M=4.07).’, ‘나에게 깨달음을 준 주변사람들(부모님, 선생님 등)의 메시지를 떠올려본다(M=4.00).’ 등의 진술문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평정하였고, ‘공부 잘 하는 친한 친구와 같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열심히 해야한다고 다짐한다(M=2.67).’, ‘목표한 성적이 도달했을 때, 부모님으로부터 받기로 한 보상을 떠올려본다(M=2.43).’, ‘좋아하는 선생님이 졸업한 대학교에 가려는 마음을 먹는다(M=2.40).’, ‘공부하기 싫어지면 다시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까지 기다린다(M=2.33).’ 등의 진술문에 대해서는 학습동기조절에 있어 그다지 중요하지 않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lt;표 2&gt; 고등학생이 인식한 학습동기조절전략에 대한 군집과 진술문, 진술문에 대한 중요도

군집명 / 진술문	중요도	
	M	SD
<b>1. 부모기대 및 또래 비교</b>	<b>3.34</b>	
주변에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공부해야겠다는 마음을 먹는다.	4.07	1.11
나에게 깨달음을 준 주변사람들(부모님, 선생님 등)의 메시지를 떠올려본다.	4.00	0.74
나에 대한 부모님의 헌신적인 지원(경제적 지원 등)을 떠올려본다.	3.80	1.21
다른 사람들(친구, 선생님, 부모님 등)의 인정이나 좋은 평가를 받는 상상을 해본다.	3.77	1.04
친구들과 비교해서 뒤처지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한다.	3.73	1.17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줘야겠다고 생각한다.	3.63	1.03
자식으로서 부모님에 대한 책임감을 떠올려본다.	3.60	1.33
경쟁상대에게 이기고 싶은 마음을 되새긴다.	3.50	1.36
친구들에게 놀림 받거나 무시당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3.37	1.13
주변사람들(부모님, 친척, 선생님 등)의 나에 대한 기대를 떠올려 본다.	3.37	1.25
성적이 좋지 않을 때, 주변사람들(부모님 등)이 실망하는 모습을 떠올려본다.	3.30	1.44
내가 공부를 못하면 부모님이 다른 사람들한테 자존심이 상할 거라는 생각을 해본다.	3.13	1.41
형제/자매/친척과의 비교를 통해 공부해야겠다는 마음을 먹는다	2.80	1.32
성적이 안 좋으면 선생님의 대우가 달라지는 것을 떠올려본다.	2.80	1.49
공부를 제대로 안할 때 주변사람들(부모님, 선생님 등)이 하는 부정적인 이야기나 질책을 떠올려본다.	2.77	1.30
공부 잘 하는 친한 친구와 같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열심히 해야한다고 다짐한다.	2.67	1.27
좋아하는 선생님이 졸업한 대학교에 가려는 마음을 먹는다.	2.40	1.22
<b>2. 수행회피</b>	<b>3.38</b>	
지금 공부를 하지 않았을 때, 나중에 후회할 내 모습을 떠올려본다.	4.31	0.93
지금 제대로 공부하지 않으면 내 성적이 얼마나 나빠질지 상상해본다.	3.63	1.22
공부를 하지 않고 놀았을 때 생기는 죄책감을 떠올려본다.	3.47	1.36
성적이 안 좋으면 자존심이 상하거나 기분이 안 좋아질 것에 대해 생각한다.	3.37	1.35
내가 원하는 대학에 떨어지는 것을 상상해본다.	3.37	1.25
공부를 하지 않았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떠올려본다.	3.07	1.11
목표한 성적에 도달했을 때, 부모님으로부터 받기로 한 보상을 떠올려본다.	2.43	1.30
<b>3. 긍정적 결과예상</b>	<b>3.86</b>	
가고 싶은 대학이나 원하는 직업과 관련된 정보를 찾아본다.	4.27	0.74
원하는 대학진학을 위해서는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4.40	0.72
나의 꿈과 비전을 이뤘을 때의 모습을 상상해본다.	4.40	0.81
공부를 잘해야 내가 원하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을거라는 생각을 해본다.	4.30	0.70



&lt;표 2&gt; 고등학생이 인식한 학습동기조절전략에 대한 군집과 진술문, 진술문에 대한 중요도

군집명 / 진술문	중요도	
	M	SD
<b>3. 긍정적 결과예상(계속)</b>	<b>3.86</b>	
공부를 열심히 하면 나중에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이라는 생각을 해본다.	4.10	1.12
대학생이 되었을 때의 내 모습을 상상해본다.	4.07	0.98
공부를 함으로써 얻는 성취감과 자신감을 떠올려본다.	4.03	1.16
공부를 열심히 하면 점점 더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4.00	1.02
공부가 미래의 부(경제력)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생각을 해본다.	3.80	1.10
공부를 마치고 나면 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한다.	3.43	1.26
공부를 끝내 놓은 후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을 떠올린다.	3.30	1.29
공부를 마친 후 놀기로 나 자신과 약속한다.	3.10	1.32
나중에 좋은 인맥을 가지려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2.93	1.31
<b>4. 개인적 가치/필요지향</b>	<b>3.66</b>	
공부할 때, 스스로 설정해둔 장기적인 목표를 떠올려본다.	3.90	1.03
지금 하고 있는 공부가 나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3.77	1.04
공부를 나의 개인적 관심과 연결 지으려고 한다.	3.53	1.33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을 해본다.	3.43	1.30
<b>5. 행동 및 환경통제</b>	<b>3.27</b>	
공부하기 전에 주변에 방해가 될 만한 것들(잡음, 핸드폰 등)을 없앤다.	3.97	1.07
공부하기 싫어지면, 휴식(잠자기 등)이나 여가활동(운동, 수다 등)을 한다.	3.77	1.25
과거에 공부를 열심히 했던 경험을 토대로 앞으로도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스스로 되뇌인다.	3.73	1.17
공부할 때 집중이 잘되는 물리적 환경(책상정리, 독서실, 장소이동 등)을 만든다.	3.70	1.12
공부계획을 세우고,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겠다고 다짐해본다.	3.63	1.16
공부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공부시간과 해야 할 공부의 양을 구체적으로 계획한다.	3.63	1.33
공부를 하고자 마음먹었을 때, 그 마음이 사라지기 전에 행동으로 바로 옮긴다.	3.53	1.31
공부를 잘 할 수 있는 기분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3.50	1.14
공부에 자극을 주는 글귀/문구를 봄으로써 마음을 다잡는다.	3.27	0.98
공부할 때 쉬운 것부터 하면서 자신감을 잃지 않도록 한다.	3.07	1.41
새로운 문구류 등의 구입을 통해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한다.	2.97	1.47
반드시 대학 진학을 위한 공부보다는, 지금 이 시기에 내가 배울 수 있는 것들을 공부해보자고 생각해본다.	2.83	1.21
공부할 때 남과 비교하지 않고, 내 나름대로의 기준에 초점을 맞춘다.	2.83	1.37
공부하기 싫어져도 억지로 참고 한다.	2.80	1.32
공부가 학생의 본분이라고 스스로에게 강조한다.	2.70	1.24
공부하기 싫어지면 다시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까지 기다린다.	2.33	1.12
<b>6. 타인의존지향</b>	<b>2.97</b>	
성공한 사람들의 경험담이나 성공과정을 떠올려본다.	3.17	0.99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는 여건을 만든다.	2.90	1.32
공부하기 힘들 때 친구들과 서로 위로하면서 독려한다.	2.83	1.23

##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개념도 연구방법을 사용하여 우리나라 학생들이 학습동기를 조절하기 위해 사용하는 전략들을 탐색적으로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들이 인식하고 있는 학습동기조절전략에 대한 개념적 구조를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대학생 32명, 고등학생 32명을 대상으로 집단 인터뷰를 실시하여, 대학생 학습동기조절전략 67개, 고등학생 학습동기조절전략 60개의 진술문을 최종 도출하였다. 유사성 분류와 중요도 평정 절차를 토대로 다차원 척도법과 군집분석을 통해 분석한 결과, 대학생과 고등학생 모두 2차원 6개 군집으로 이루어진 개념도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와 논의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과 고등학생에게서 도출된 차원을 비교해보면, 두 집단 모두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학습동기조절전략의 차원은 ‘개인지향’, ‘관계지향’, 그리고 ‘보상지향’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우리나라 학생들은 개인내적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도달하기 위해 스스로 계획하고 노력함으로써 동기를 증진시키거나, 아니면 타인과 비교하거나 부모의 기대를 의식하면서 학습동기를 증진시키는 것으로 보이며, 또한 미래에 나타날 학습의 긍정적 혹은 부정적 결과를 미리 예상함으로써 동기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대학생과 고등학생에게서 다소 상이하게 나타난 마지막 차원은 각각 ‘효능감/의미지향’과 ‘내외적 환경조성지향’인데, 대학생의 경우는 학습하는 과정에서 자기격려나 자기암시를 사용하여 공부에 의미를 부여하거나, 긍정적인 경험을 떠올려보는 등과 같은 방법으로 학습동기를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며, 고등학생은 주변사람들에 의해 용기를 얻어 공부를 하거나, 스스로의 행동과 환경을 통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학습동기를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념도 연구방법을 통해 도출된 이러한 차원은 같은 연구방법을 적용해서 이루어진 선행연구가 없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해석은 어려우나, Wolters(1998)와 Schwinger 등(2007)은 동기조절전략을 크게 내재적 또는 외재적 전략으로 구분한 바 있으며, 내재적 전략에는 숙달 자기지시나 흥미강화가 포함되고, 외재적 전략에는 수행자기지시나 환경통제, 자기결과조치가 포함되었다고 하였다. 이정윤(2013)은 Schwinger 등(2007)이 개발한 척도를 기초로 하여 제시한 학습동기조절전략들을 상위 요인분석한 결과, 다른 사람보다 좋은 성적을 얻으려는 동기 또는 친구들과 비교하여 창피하지 않으려는 동기, 즉 수행중심 자기지시가 하나의 요인으로 묶이고, 나머지 요인들(흥미/의미증진, 근접목표설정, 숙달자기지시, 환경통제, 자기결과조치)이 또 다른 요인으로 묶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로 미뤄볼 때, 서양에서는 동기요인이 자기 내부에서 발생한 것과 외부에서 발생한 것으로 크게 구분이 가능한 것에 비해, 우리나라에서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발생하는 것과 개인적 차원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동기요인을 구분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볼게 한다. 본 연구에서도 개인지향과 관계지향 차원으로 학습동기조절전략이

크게 구분되는 점으로 미뤄보아, 학습동기를 조절하기 위해 우리나라 학생들은 개인적 차원 이외에도, 부모나 교사 같은 주변사람들의 기대나 친구와의 비교가 학습동기를 조절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학습 후 미래에 나타날 긍정적 결과나 보상을 예상하는 것 역시 우리나라 학생들의 학습동기를 조절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대학생은 고등학생에 비해, 자기암시나 자기격려를 통해 공부에 의미를 부여하거나, 직간접적 경험을 떠올리면서 효능감을 증진시키는 등 보다 적극적인 방법으로 학습동기를 높이려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대학생과 고등학생에게서 나타난 6개 군집을 비교해보면, 우선 대학생의 경우는 ‘행동 및 환경통제/숙달’, ‘긍정적 자기암시를 통한 의미부여’, ‘직간접적 경험을 통한 효능감 증진’, ‘공부에 대한 의무감 및 당위성’, ‘부모기대 및 또래비교/수행회피’, 그리고 ‘긍정적 결과 예상’이었고, 고등학생은 ‘부모기대 및 또래비교’, ‘수행회피’, ‘긍정적 결과예상’, ‘개인적 가치/필요지향’, ‘행동 및 환경통제’, 그리고 ‘타인의존지향’으로 각각 군집이 도출되었다. 대학생과 고등학생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군집은 ‘행동 및 환경통제’, ‘부모기대 및 또래비교’, ‘긍정적 결과 예상’, 그리고 독립된 군집은 아니지만 ‘수행회피’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우리나라 학생들은 일반적으로 학습동기를 조절하기 위한 전략으로, 미래에 나타날 긍정적 결과를 예상하며 공부하거나, 부모의 기대나 또래와의 비교를 의식하면서 공부하는 것으로 보이며, 스스로 목표와 계획을 세우고 환경을 통제하는 방법을 사용하면서 공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와 함께 공부를 안했을 때 생길 부정적인 결과를 피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즉 수행회피 전략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국내에서 수행된 박병기 등(2005)과 양명희 등(2013)의 연구에서 개발된 척도 하위요인과 비교해보면, 학습 후 미래에 주어질 긍정적인 외적 결과를 기대하는 것과,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스스로 환경을 통제하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특히 부모를 떠올리면서 공부해야할 이유와 목적을 찾는 것이 본 연구결과에서 새롭게 혹은 보다 강조되어 나타난 요인으로 보인다.

한편 대학생과 고등학생에게서 각각 상이하게 나타난 군집들을 살펴보면, 대학생은 ‘긍정적 자기 암시를 통한 의미부여’, ‘직간접적 경험을 통한 효능감 증진’, ‘공부에 의한 의무감/당위성’, 그리고 독립된 군집은 아니지만 ‘숙달’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에 비해 고등학생은 ‘개인적 가치/필요지향’과 ‘타인의존지향’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생은 학습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포기하고 싶을 때 마음을 다잡기 위해 스스로 독려를 함으로써 학습동기를 조절하고,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키고 배움 자체에 목표를 두거나, 개인적 경험이나 간접적 경험을 통해 깨달은 공부의 필요성을 떠올리면서 학습동기를 높이고자 하고, 공부를 해야 한다는 의무감이나 당위성을 떠올려 스스로를 압박함으로써 학습동기를 높이는 전략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비해 고등학생은 주변의 자원(친구, 경험담)을 활용함으로써 공부 여건을 만

들거나, 주변의 지지를 받아 학습동기를 높이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학습의 주요한 목표를 자신의 능력을 계발하는 데 두는 숙달지향적 전략은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생과 대학생에게서 나타나는 이러한 차이는 연령에 따라 목표지향성이 달라지며, 특히 대학생이 중고등학생보다 숙달목표를 더 지향한다고 밝힌 박병기와 이종욱(2005), 양명희(2009)의 연구결과, 또 20대 초반 대학생 시기가 부모나 선생님과 같은 다른 성인들로부터 차츰 독립하면서 자기주도적 학습을 지향하는 최적기이며(김연화, 유경미, 2014), 이 시기의 학습자들이 유능감을 형성하고, 감정을 관리하며, 삶의 목표를 구체화하는 시기이므로(Wigfield & Guthrie, 1997), 진정한 의미의 자기효능감을 형성하여 이것이 학습자의 내적 동기유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지적한 김아영(2003)의 연구결과와도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대학생과 고등학생의 군집별 중요도를 비교해보면, 대학생과 고등학생 모두 '긍정적 결과 예상'이 학습동기를 조절하는 전략에 있어 가장 중요하다( $M=3.61$ ,  $M=3.86$ )고 인식하였다. 이는 주로 학습을 하게 됨으로써 얻게 되는 성적이나 대학진학 또는 취업, 휴식, 장학금, 경제력 등의 긍정적인 결과 및 보상을 기대함으로써 학습에 대한 동기를 높이는 것으로, 우리나라 학생들은 사회적 인정을 얻기 위해 공부하는 것을 개인적 성취를 얻기 위해 공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학습동기일 가능성을 시사해 준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아시아의 집단주의 사회에서는 사회적 동기를 지향하거나 사회적 인정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며, 외재적 동기를 통해 학습동기를 높인다고 보고한 이주현과 이순목(2001), 김의철 등(2004), Bong(2003)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한편 대학생과 고등학생의 차이를 살펴보면, 대학생이 부모기대 및 또래비교와 수행회피의 중요도를  $M=2.93$ 로 보고한 것에 비해, 고등학생은 수행회피를  $M=3.38$ , 부모기대 및 또래비교를  $M=3.34$ 로 보고하고 있다. 또한 대학생은 행동 및 환경통제/숙달을  $M=3.55$ 로 보고한 것에 비해, 고등학생은 숙달요인은 나타나지 않을 뿐 아니라, 행동 및 환경통제도  $M=3.27$ 로서 대학생보다 중요도를 낮게 지각하고 있었다. 이는 고등학생이 대학생보다 친구와의 비교나 경쟁, 그리고 부모의 기대로 인한 부담감 등을 더 중요하게 느끼고 있으며, 내적동기에 의해 배움 자체에 의미를 두는 숙달지향보다 부정적 결과를 피하기 위해 공부하는 수행회피지향을 보다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한국의 대학입시제도와 맞물려 해석이 가능한데,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은 대학진학을 목적으로 한 학업성취를 중요하게 인식하므로 봉미미 등(2008)의 주장과 같이 한국 청소년들은 다른 국가 청소년에 비해 외재적 이유에 의해 학습하는 경우가 많으며, 그 과정에서 부모 등 주변의 기대나 압력에 의해 학습동기를 유지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김은영, 2008), 위와 같은 성향이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에게서 보다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중요도에서의 이와 같은 차이는 일정 부분 문화적, 발달적 맥락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며, 향후 학습동기와 관련하여 학생들에게 개별적으로 개입할 때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고등학생과 대학生の 進술문을 비교해보면, 대학생과 비교했을 때 고등학생은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키고 배움 자체에 목표를 두는 숙달자기지시와 관련된 학습동기조절전략은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친구들과 함께 공부를 함으로써 학습동기를 높이거나 개인적 가치나 필요와 연결 짓는 등의 전략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학생과 고등학생 모두 학습동기조절전략으로 부모와 관련한 進술문이 나타났으나, 고등학생이 대학生에 비해 부모와 관련한 것으로 인해 학습 동기를 높이는 전략을 더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부모님의 헌신적인 지원(경제적 지원)을 떠올려본다(고등학생 M=3.80, 대학生 M=3.00), '자식으로서 부모님에 대한 책임감을 떠올려본다'(고등학생 M=3.60, 대학生 M=3.00)). 이와 같은 결과는 한국 청소년의 내재적 동기가 심각한 결여를 보인다는 견해(봉미미 등, 2008)와 일치하며, 같은 집단주의 문화권에 속하는 한국과 중국 학생의 성취비교 지향성을 비교한 연구에서 한국 중학생이 중국 중학생에 비해 수행접근, 숙달회피, 수행회피 목표지향성이 더 높아, 부정적인 학습동기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보고한 연구결과(이종욱, 송귀난, 박병기, 2013)와도 일치한다. 즉, 대학진학을 중요한 목적으로 두고 공부하는 우리나라의 고등학생들은 배움 자체에 목표를 두기보다는, 좋은 대학에 진학할 것을 기대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부모의 기대나 압력으로 인해 공부하는 것이 학습에 있어서 보다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 고등학생과 대학生에게서 도출된 학습동기조절전략들을 기존의 서양문화권에 서 제시된 전략들과 비교해보면, 우리나라와 서양문화권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학습동기조절전략은, 주로 공부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환경을 통제하거나, 친구들보다 못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혹은 나쁜 성적을 받지 않기 위해 공부하는 수행회피 전략인 것으로 보인다. 서양문화권 학생들이 사용하는 공부를 개인적 경험이나 관심과 연관 짓는 개인의미증진이나, 공부가 자신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조절 전략은, 우리나라의 경우 고등학생보다는 대학生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키고 배움 자체에 목표를 두는 숙달 역시 우리나라 고등학생들보다는 대학生들이 사용하고 있는 전략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서양문화권 학생들에게서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우리나라 학생들이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난 전략은, 부모기대 및 또래비교와 긍정적 결과예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래비교의 경우 물론 서양문화권 학생들도 수행접근이나 수행회피전략을 사용할 때 일부 사용하기도 하지만, 우리나라 학생들은 친구들과의 비교나 경쟁의식이 서양문화권 학생들보다 훨씬 더 강한 것으로 보이며, 특히 부모의 헌신적인 지원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부모의 기대를 충족시키고자 노력하며, 부모가 자신에게 실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 부담감을 가지고 공부하는 경향이 매우 강한 것으로 보인다. 긍정적 결과예상도, 서양문화권 학생들이 공부를 마쳤을 때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기로 스스로 보상해주는 자기결과조치의 수준을 넘어서, 공부를 하면 얻게 될 사회적 인정을 추구하고 자신이 원하는 대학이나 직장 혹은 경제력 등과 같은 외적 동기를 충족시키려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 학생들이 학습동기를 조절하는데 있어서 훨씬 더 중요하게 작용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집단주의 문화권 학생들이 사회적 인정을 보다 많이 추구하고, 사회지향적인 성취동기를 지니며, 부모나 가족에 대한 의무감을 많이 지니므로, 원하는 대학이나 직장에 들어가기 위한 것이나 혹은 부모를 기쁘게 하기 위한 것과 같은 외적 동기가 학습에 강하게 작용한다는 기존의 연구결과들(김의철 등, 2004; 봉미미 등, 2008; Triandis, 1990; Yu & Yang, 1994; Niles, 1995; Nie & Liem, 2013)을 지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은 공부할 때 흥미나 의미를 증진시키는 전략을 구분하지 않을 뿐 더러, 가장 적게 사용하는 전략이라고 밝힌 이정운(2013)의 연구결과와도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집단주의 문화권 학생들이 서양 문화권 학생들에 비해 훨씬 더 다양한 학습동기조절전략을 사용한다는 박병기 등(2005), 양명희와 정윤선(2013), 그리고 Niels(1995)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종합하면, 우리나라 학생들은 서양 문화권 학생들보다 훨씬 더 다양한 학습동기조절전략을 사용하고 있으며, 특히 부모님을 생각하거나, 또래와의 비교와 경쟁을 많이 의식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공부를 함으로써 미래에 얻게 될 다양한 외적보상을 추구하는 동기가 서양 학생들에 비해 훨씬 더 강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학생들은 대학생과 고등학생 모두 관계지향 차원 즉, 부모나 교사의 기대, 친구와의 비교가 중요한 학습동기이며, 긍정적 결과예상과 수행회피전략을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고등학생은 대학생에 비해 친구와의 경쟁이나 비교, 그리고 부모에 대한 부담감을 더 많이 의식하고 있었으며, 수행회피전략을 주로 사용하는 반면, 숙달이나 의미 혹은 효능감을 증진시키는 전략은 대학생이 상대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동양 문화권인 우리나라 학생들과 서양의 학생들이 사용하고 있는 학습동기조절전략에서 차이가 있을 가능성을 확인하였을 뿐 아니라, 같은 문화권이라도 발달 연령이나 이들이 처한 학습환경에 따라 대학생과 고등학생이 사용하고 있는 학습동기조절전략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Rosas와 Camphausen(2007)이 제안한 바와 같이, 향후 우리나라 학생들의 학습동기조절전략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측정 도구를 개발하는데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대학생과 고등학생 각 32명을 대상으로 개념도 연구방법을 적용한 것으로, 양적 연구방법을 적용한 여타 연구에 비해서 연구결과를 일반화시키는데 제한이 따를 수 있다. 둘째, 본 연구를 통해 동서양간 문화적 맥락에 따라 학습동기 조절전략에 차이가 있다는 점이 탐색적으로 밝혀졌다 하더라도, 그러한 차이가 어떤 과정을 통해 기인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인과적 설명에는 제한이 따른다. 따라서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연구결과의 일반화를 위해 본 연구에서 얻은 연구결과를 보다 많은 학생들에게 확인하는 차원의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학습동기조절전략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가족, 그리고 사회적 영향에 대한 인과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종단적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전명남과 박혜숙(2012), 박승호(2013)가 다양한 평가방법을 통해 학습동기조절전략을 측정하는 자기보고식 척도의 제한점을 보완할 것을 주장한 것처럼, 질적 연구방법을 보완하여 구체적이고 다양한 전략들을 밝혀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또한 무엇보다 기존에 서구에서 개발된 척도를 그대로 번안하여 우리나라 학생들에게 적용하였던 것에서 벗어나, 우리나라 학생들을 대상으로 직접 개념도 방법을 통해 학습동기조절전략을 도출해냄으로써, 우리나라 학생들이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전략들을 밝혀냈다는데 가장 큰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한국형 학습동기조절전략 척도를 개발하여, 동서양 문화간 학습동기조절전략에 대한 비교연구를 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 참고문헌

- 김아영(2003). 교실에서의 동기. **교육심리연구**, 17(1), 5-36.
- 김연화, 유경미(2014). 대학생의 사회비교동기 및 자기주도적 학습과 자기효능감과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21(4), 107-132.
- 김은영(2008). 여자대학생의 학업성취도에 따른 동기조절전략 연구. **교육심리연구**, 22(1), 111-127.
- 김의철, 박영신, 구재선(2004). 한국의 청소년 문화, 사회화 과정과 교육적 성취-토착적, 심리적, 문화적 맥락에서의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0(특집호), 177-209.
- 민경화, 최윤정(2007). 상담학 연구에서 개념도 방법의 적용. **상담학연구**, 8(4), 1291-1307.
- 박병기, 전기수, 김선미, 이종욱(2005). 자기조절학습의 복합적 측정도구 개발과 타당화: 동기조절 척도의 통합을 중심으로. **교육심리연구**, 19(2), 455-476.
- 박승호(2013). 자기조절학습의 현재와 미래 과제. **교육심리연구**, 27(3), 629-646.
- 박영신, 김의철, 정갑순(2004). 한국 청소년의 부모자녀관계와 성취에 대한 종단연구: 자기효능감과 성취동기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0(3), 37-59.
- 박진아, 서은국(2007). 개인의 집합주의 성향과 집합주의 사고억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1(4), 105-116.
- 봉미미, 김혜연, 신지연, 이수현, 이화숙(2008). 한국 청소년의 학습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문화적 요인 탐색.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4(1), 319-348.
- 양명희, 오종철(2006). 2x2 성취목표지향성과 자기조절학습과의 관련성 검토. **교육심리연구**, 20(3), 745-764.
- 양명희, 정윤선(2013). 자기조절학습 척도 개발 및 구조 검증-동기조절과 정서조절을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20(12), 239-266.
- 이정윤(2013). 학습동기조절전략 척도의 예비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5(4), 795-812.
- 이주현, 이순목(2001). 영어 학습에 관련된 동기변인들의 관계분석: 목표지향성, 자기효능감, 영어 학습이유를 중심으로. **교육심리연구**, 15(2), 217-234.
- 이종욱, 송귀난, 박병기(2013). 한국과 중국 중학생의 성취목표지향성 비교. **아동교육**, 22(4), 187-205.
- 전명남, 박혜숙(2012). 대학생용 동기조절전략 척도의 타당화. **사회과학연구**, 38(2), 23-45.
- 조은문, 이종연(2010). 중학생의 동기조절전략과 자기결정동기 및 학업성취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7(3), 405-428.



- Bedi, R. P. (2004). *Concept-mapping the client's perspective on counseling alliance formation*. Doctoral dissertation, The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 Bong, M. (2003). Choices, evaluations, and opportunities for success: Academic motivation of Korean adolescents. In F. Pajares., & T. C. Urdan. (Eds.), *Adolescence and education: Vol. 3, International perspectives*(pp.323-345). Greenwich, CT: Information Age.
- Chao, R., & Tseng, V. (2002). Parenting of asians. *Handbook of parenting, 4, Social conditions and applied parenting*(2nd ed., pp. 59-93).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Publishers.
- Dweck, C. S. (1986). Motivational processes affecting learning. *American Psychologist, 41*, 1040-1048.
- Garcia, T., Yu, S. L., & Coppola, B. P. (1993). *Gender effects in academic cognition, motivation, and achievement*. (ERIC Document Reproduction Number ED 359 235).
- Gol, A. R., & Cook, S. W. (2004). Exploring the Underlying Dimensions of Coping: A Concept Mapping Approach.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23*(2), 155-171.
- Goodyear, R. K., Lichtenberg, J. W., Tracey, T. J. G., Claiborn, C. D., & Wampold, B. E. (2005). Ideographic concept mapping in counseling psychology research: Conceptual overview, methodology, and an illustratio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2*(2), 236-242.
- Jiang, Y., Bong, M., & Kim, S. I. (2015). Conformity of Korean adolescents in their perceptions of social relationships and academic motivation. *Learning and Individual Differences, 40*, 41-54.
- Kane, M., & Trochim, W. M. K. (2007). *Concept mapping for planning and evaluation*. Thousand Oaks, CA: Sage.
- Nie, Y., & Liem, G. A. D. (2013). Extending antecedents of achievement goals: The double-edged sword effect of social-oriented achievement motive and gender differences. *Learning and Individual Differences, 23*, 249-255.
- Niles, F. S. (1995). Cultural differences in learning motivation and learning strategies: A comparison of overseas and Australian students at an Australian university.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19*(3), 369-385.
- Pintrinch, P. R. (2000). Multiple goals, multiple pathways: The role of goal orientation in learning and achievement.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92*, 544-555.
- Rosas, S. R., & Camphausen, L. C. (2007). The use of concept mapping for scale development and validation in evaluation. *Evaluation and Program Planning, 30*(2), 125-135.

- Schunk, D. H. (1991). Self-efficacy and academic motivation. *Educational Psychologist, 26*, 207-231.
- Schwinger, M., von der Laden, T., & Spinath, B. (2007). Strategien zur motivations regulation und ihre Erfassung[Motivational regulation strategies and their measurement]. *Zeitschrift für Entwicklungspsychologie und Pädagogische Psychologie, 39*, 57-69.
- Triandis, H. C. (1990) Cross-cultural studies of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In J. Berman(Ed.), *Nebraska symposium on motivation, 1989*, (pp. 41-133). Lincoln, Nebraska: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 Triandis, H. C., Bontempo, R., Villareal, M. J., Asai, M., & Lucca, N. (1988).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Cross-cultural perspectives on self-ingroup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4*(2), 323.
- Tromchim, W. (1989). An Introduction to concept mapping for planning and evaluation. In W. Trochim(Ed.), *A Special issue of education and program planning, 12*, 1-16.
- Wigfield, A., & Guthrie, J. T.(1997). Relations of children's motivation for reading.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9*(3), 420-433.
- Wolters, C. A. (1999). The relation between high school students' motivational regulation and their use of learning strategies, effort, and classroom performance. *Learning and Individual Differences, 11*, 281-299.
- Wolters, C. A. (2003). Regulation of motivation: Evaluating an underemphasized aspect of self-regulated learning, *Educational Psychologist, 38*, 189-205.
- Wolters, C. A. (2010). Understanding and predicting the self-regulation of motivation in college students. *International Conference on Educational Research*, Seoul National University, Oct 1st.
- Yu, A. B., & Yang, K. S. (1994). The nature of achievement motivation in collectivist societies. In U. Kim, H. C. Triandis, C. Kagitcibasi, S. C. Choi, & G. Yoon (Eds.),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Theory, method, and applications* (pp. 239-250). Thousand Oaks, CA: Sage.
- Zeidner, M., Boekaerts, M., & Pintrinch, P. R. (2000). Self-regulation: Directions and challenges for future research. In M. Boekaerts, P. R. Pintrinch & Zeinder(Eds.), *Handbook of self-regulation* (pp.750-769). San Diego, CA: Academic Press.
- Zusho, A., Pintrinch, P. R., & Cortina, K. S. (2005). Motives, goal, and adaptive patterns of performance in Asian American and Anglo American students. *Learning and Individual Differences, 15*, 141-158.

\* 논문접수 2016년 8월 2일 / 1차 심사 2016년 9월 9일 / 게재승인 2016년 9월 21일

\* 이정윤: 연세대학교 심리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교 대학원에서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성신여자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다.

\* E-mail: jungyoan@sungshin.ac.kr

\* 정혜연: 한국외국어대학교 컴퓨터공학과를 졸업하고,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심리학과에서 상담심리 전공으로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동 대학원 박사과정을 수료하였다.

\* E-mail: dew140@hanmail.net

\* 김지현: 성신여자대학교 통계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교 대학원 음악치료학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동 대학원 심리학과에서 상담심리 전공으로 박사과정을 수료하였다.

\* E-mail: korea3304@hanmail.net

## Abstract

## A Comparison Study on Learning Motivational Regulation Strategies between Korean University and High-school Students Using Concept Mapping Method\*

Lee, Jungyoon\*\*  
Jung, Hye yeun\*\*\*  
Kim, Ji-Hyeo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learning motivational regulation strategies which university and high-school students using and to identify the conceptual structure of them through concept mapping method. Each 32 university and high-school students participated in brainstorming stage, 67 and 60 statements each were finally reduced from 382 and 271 ideas. 30 university and 28 high-school students among who participated in brainstorming stage performed cards sorting. As a results of multidimensional scaling and hierarchical cluster analysis using these results, 2 dimensions(individual vs. relational, efficacy & personal meaning vs. reward axes for university students, individual vs. relational, internal-external environments vs. reward axes for high-school students) were found and 6 clusters(behavioral-environmental control/ mastery goal, investment of personal meaning through positive self-talk, enhancement of personal efficacy via direct/indirect experiences, having duty about studying, parental expectation and peer comparison/ performance-avoidance goal, anticipating positive results for university students, parental expectation and peer comparison, performance-avoidance goal, anticipating positive results, personal value & needs orientation, behavioral-environmental control, dependency on the other person for high-school students) were grouped. Research implications on Korean students' learning motivational regulation strategies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were discussed.

Key words: learning motivation, learning motivational regulation strategies, concept mapping.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Grant funded by the Korean Government (NRF-2014S1A5A2A01012660).

\*\* First and corresponding author, Professor, Sungshin Women's University.

\*\*\* Second author, ABD, Sungshin Women's University.

\*\*\*\* Third author, ABD, Sungshin Women's University.